일본의 죽음과 장례

2X1X1X91 정X지

장례 혹은 장례식이란 사람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제의 또는 장제의 일부입니다. 장례 양식에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사생관, 종교관이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례식은 종교가 문명에 발생하기 이전 구석기 시대부터 행해져 온 종교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은 고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 행해진다는 의미도 있어, 남겨진 사람들이 마음 속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일본인의 죽음의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첫번째로는 사망 장소의 추이입니다. 사망 장소는 1965년 병원이 24.6%였으나 현재는 진료소를 더하면 80%를 넘습니다. 자택에서 사망하던 것이 65년에는 65%에서 지금은 13.5%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50년 정도라면 80% 정도가 집에서 사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병원에서의 죽음과 집에서의 죽음의 확률이 역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죽음의 개념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자녀가 성장하여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 그 후에 죽음이 있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생 계획의 마지막에 죽음이 있는 것으로 이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노년기 까지를 인간의 삶 전체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은 종국까지 도달하지 못한 중간 죽음이 많았습니다. 일본인의 전통적인 죽음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노년기의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인의 죽음의 상황은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노인의 죽음이 전체의 80% 가까이 된다고 해도 20% 이상의 죽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도 약 4만 명이나 있었고, 암으로 인한 죽음이 30% 정도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죽음은 노인 이외에도 갑자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음의 환경 변화입니다. 죽음의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장소에서 점점 죽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간병하고 사망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완전히 역전되어 지금은 집에서 죽는 것이 드문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죽으면 가족들이 모두 죽음을 직접 체험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핵가족화로 죽음을 간병하는 인간이 소수화 되고 있습니다. 장례식 그 자체도 이전에는 자택에서 행해지고 있었지만 지금 도내에서는 10%를 자르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은 장례식 회관이나 절에서 치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죽지 않고 보내지는 것도 집이 아닌 죽음이 생활 속에서 벗어나 따로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의 담당자도 과거에는 지역 공동체였지만, 이것도 장례 업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식과 무덤의 변화입니다. 첫번째, 화장만의 장례식입니다. 최근에는 화장뿐인 장례식입니다. 쉽게 말해 장례식을 치르지 않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해도 진정한 근친자만으로 끝내는 형태가 드문 것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은 특수한 경우이지만, 개중에는 습골을 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하고 화장터에서 구운 후 습골을 하고 유골을 항아리에 담아 돌아오는데, 그 습골을 거부하고 화장터에 두고 오는 유족이 나왔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상 습골을 하지 않고 두고 오는 것은 형법 190조의 유골 유기에 해당할 것이라 생각되겠지만 묘지 매장법에서는 소골이라고 합니다. 유골은 매장해 골화한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골은 유골이 아닙니다. 간사이 사람들은 유골을 두고 오는 행위를 모두 유골 유기라고 하지만 이건 습속의 문제로 습속을 벌할 수는 없습니다. 습골을 하지 않으면 유골이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를 가족들이 화장터에서 자의로 두고 온 것이기에 나중에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습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자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고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덤의 의식 변화입니다. 민중들이 무덤을 갖게 된 것은 오닌의 난 이후입니다. 에도시대 중기 이후로는 사단 제도가 널리 보급되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헤이안 시대 초기에는 귀족들이 자신들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이 단가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무덤을 관리하게 됩니다. 60년대 말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도시화의 물결을 타고 지금보다 단위가 작은 핵가족 미니가묘가 등장했습니다. 수도권 근방에서는 무덤이 늘어나면서 점점 묘지가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덤의 후계자입니다. 80년대 말부터 나온 것이 영대 전양 묘입니다. 니가타의 묘코지의 안온 묘소가 유명하지만 가장 처음은 히에이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대 공양 묘란 후사가 필요 없는 무덤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책임 하에 무덤을 지켜야 했지만 그것을 절의 책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99년에는 묘지 매장법의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무연 분묘의 이장 절차가 간략화 되었습니다. 아무도 후사가 없어 무연고해진 무덤은 1년 동안 게시판을 세워놓고 관보에 공지하여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민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비용과 절차가 꽤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대 사용이란 후사가 있는 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일 후사가 없어지면 곧바로 철거되어도 불평을 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죽음의 병 구완의 습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현재 일본의 죽음의 판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의 죽음의 판정은 의사에 의해 판정됩니다. 죽음의 개념은 지금까지는 ‘심장사’뿐이었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는다, 심장 박동이 없다, 동공 반응이 없다 등 불가역적 정지 상태인지를 의사가 판정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뇌사의 개념이 추가되었으며, 뇌사와 관련하여 생긴 법은 장기이식 법입니다. 뇌사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새로운 죽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희귀 케이스로 1%가 채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뇌사는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가 없으면 뇌사 판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죽음의 판정은 현재의 점과는 달리 과정이었습니다. ‘숨을 안 쉬거나, 사후 경직이 일어나고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단계를 확인하면서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후 처치와 습속입니다. 일반 케이스는 의사에 의해 죽음이 판정이 되면 간호사가 링거 관 등을 제거하게 되고 후에 찻잔에 물을 담아 가져다줍니다. 그러면 임종을 지켜본 사람 한 사람 한사람이 면봉에 물을 적시고, 그것으로 죽은 사람의 입술을 축이고 이별을 고합니다. 이를 “말기의 물” 혹은 “죽은 물”이라고 하는 의례입니다. 그 후에 간호사가 전신을 깨끗이 하고 체액 등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처치하는 청치를 하고, 자택으로 침대차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장례 회관에서 장례를 치른다 해도 우선 집에 돌려놓고 이불에 눕혀 두었지만, 지금은 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장례 회관으로 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택에서 사망을 하는 경우 말기의 물 후에 ‘영혼 불러오기’라는 것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옛날 일본인의 죽음의 개념은 몸에서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부르는 것은 지붕에 오르거나 우물 밑바닥을 향해 영혼을 부르고, 몸에 영혼이 돌아오면 되살아나는 재생을 기원하는 관습이었습니다. 말기의 물에 대해서도 하나는 이별의 의미가 있지만, 재생을 바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장례업과 회식과 상복입니다. 일본의 장례는 근친자가 치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장례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사무처리를 해야 하고, 빈도가 매우 낮은 행사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만 치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돕는 서비스업으로 장례업이 있습니다. 장례업은 사업면허는 없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시신, 종교, 관련 법규 등 다양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장례의 회식과 상복입니다. 일본에서는 장례식이 끝난 후에 마지막으로 회식을 합니다. 이것은 몇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자와의 이별을 의미하고, 두번째는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 마지막으로는 초 칠일을 앞당긴 제사의 제사 자리입니다. 이는 관서에서는 마무리, 도쿄에서는 청결과 정진제거, 기타로는 기중퇴제와 기중퇴, 오재를 뜻합니다. 수의는 수행승의 여행 모습을 본뜻 것으로 죽은 자는 극락정토로 여행을 떠나거나 불제자가 된 죽은 자가 앞으로 수행을 해야 한다는 모습을 본뜬 것입니다.